

# 일제시기 천도교 혁신세력의 ‘東道’ 주의와 종교·정치 활동

홍 동 현\*

- I. 머리말
- II. 천도교 혁신세력의 현실인식과 ‘東道’주의
- III. 천도교 혁신세력의 종교·정치활동
  - 1. 人乃天의 종교적 실천과 자치공동체 건설
  - 2. 斥倭倡義論 계승과 고려혁명당의 통일전선 운동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천도교 혁신운동은 3.1운동 직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의로’,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를 주도했던 혁신세력은 기본적으로 서양 근대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학적 전통을 계승하고자 한 ‘東道’주의적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혁신세력의 ‘東道’주의는 우선 사상적으로 최시형의 事人如天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천도교의 宗旨인 人乃天을 事人如天에서 발원하여 절대평등론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주도한 천도교 내 혁신운동은 교단운영과 관련해서 인내천주의의 제도적 실천을 위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설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sanjuk92@hanmail.net

것이었다. 또한 만주 이주를 통한 자치공동체 건설 운동은 인내천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開闢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東道주의는 역사적으로 1894년 東學亂에 대한 강한 계승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학 적통의식을 보이면서 동학란 당시 斥倭 倡義論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특히 혁신세력의 중심인물인 최동희는 東學亂의 역사적 공적을 내세워 코민테른의 국제적 지원과 함께 통일전선체인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위한 좌우합작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처럼 혁신세력은 절대평등론으로서 인내천주의와 함께 동학란의 역사적 공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항일운동을 통한 민족해방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의 평등이 보장되는 非자본주의 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 주제어

천도교, 혁신세력, 人乃天, 東學亂, 절대평등론, 斥倭洋倡義, 고려혁명당

## I.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손병희 중심으로 재편된 동학교단은 문명개화론을 선언한 이후 빠르게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으로 용인 받고자 하였다. 이들은 천도교로 改新한 이후 조선내 문명개화운동을 주도해 갔으며, 1910년 국망 이후에는 민족종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종교적 조직력을 기반으로 1919년 3.1운동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1920년대 민족주의 세력의 한축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교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이들의 민족운동은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결국 일제의 식민지배가 강화되면서 주류를 장악한 신파는 점차 '타협적'인 자치운동으로 기울어졌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천도교 세력은 현실인식 및 운동 노선을 둘러싸고 내부 분화가 일어나기도 했다.<sup>1)</sup>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크게 두 번의 분화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사상의 유입과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천도교 내 혁신문제를 둘러싸고 천도교연합회가 분립하였으며, 두 번째는 민족주의 진영내 통일전선이 대두되는 가운데 민족운동 노선을 둘러싸고 천도교 신·구파로 분화하였다. 특히, 첫 번째 분화를 주도한 혁신세력은 사상적으로나 이후 보여준 그들의 행적들이 천도교 내부에서 매우 이질적인 흐름 속에 위치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

1) 일제시기 천도교 세력의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김도형은 1920년대 천도교의 민족운동을 종교로서 자신들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사회에 적용해 나간 종교운동의 측면을 강조하였으며(김도형, 「1920년대 천도교계의 민족운동 연구」, 『역사와 현실』 30, 1998), 김정인은 천도교 교단 세력의 근대문명과 민족운동 노선을 둘러싼 분화와 교단을 장악한 신파가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을 근대화 노선과 연계하여 해명하기도 하였다(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이와 함께 조규태는 1920년대 천도교 신파의 문화운동론의 성격과 이를 기반으로 추진한 계몽운동, 자치운동, 농민운동을 분석하였으며(조규태, 『천도교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정용서는 천도교의 정치운동 논리로 性身雙全·教政一致論의 변용과정을 분석하여 한국근현대사에서 천도교의 위상과 역할을 '종교운동'과 '정치운동'을 함께 살펴보았다(정용서, 『일제하·해방후 천도교 세력의 정치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주로 3.1운동이후 혁신세력의 사상적 배경과 혁신운동의 내용, 그리고 고려혁명당의 통일전선 운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특징 등이 검토되어 왔다.<sup>2)</sup>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천도교 혁신세력은 2대 교조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회를 중심으로 대략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오지영과 홍병기를 중심으로 한 원로그룹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이다.<sup>3)</sup> 이들은 천도교의 문명개화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동시에 천도교 이전 동학적 전통에 대한 강한 계승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1920년대 자치공동체 운동과 고려혁명당 결성 등 천도교 주류세력들과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결국 오지영이 ‘주의의 싸움’이라고<sup>4)</sup> 지적하고 있듯이 인식적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혁신세력이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과 함께 동학적 전통 속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본 논문에서는 ‘東道’주의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

2) 혁신세력의 혁신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용창, 「1920년대 천도교의 분류와 민족주의운동」,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선인, 2006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최동회를 중심으로 한 고려혁명당을 검토한 연구는 최익환, 「고려혁명당」상·하, 『신인간』359-360, 1978 ; 이준식, 「최동회의 민족혁명운동과 코민테른」, 『역사와 현실』32, 1999를 참고.

3) 천도교 혁신세력은 모두 네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전라북도 익산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오지영, 유공삼 등이다. 두 번째 그룹은 홍병기, 윤익선, 김삼묵으로 구성된 홍병기계 인사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최동회와 그의 친우인 이상우이며, 네 번째 그룹은 이동구, 이동락, 김봉국, 조인성과 같은 의정원 의원과 김교경, 지동섭, 김광희와 같은 교섭위원들이다(조규태, 앞의 책, 2006, 선인, 188~197쪽). 오지영은 최동회의 동생 최동호의 장인이며, 홍병기의 여동생이 최동회의 부인이다. 그리고 넷째 그룹 인사들은 주로 천도교교리강습소 출신의 소장파들이며, 이후 형평사총본부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최동회와 함께 고려혁명당 결성 및 활동에 적극적이었다(김정인, 앞의 책, 2017, 181~182쪽).

4) 오지영, 『동학사(초고본)』(『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1권, 사운연구소, 576쪽).

볼 것이다. 즉, 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東道’주의는 기본적으로 ‘新舊折衷’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말 유교적 사고를 기반으로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자했던 동도서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세력이 계승하고자 한 ‘東道’란 유학이 아니라 ‘東學’과 ‘동학적 전통’이라는 점에서 동도서기론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인식적 기반 속에서 천도교의 중지인 인내천과 동학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공적인 동학란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승하고자 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세력이 계승하고자 한 ‘東道’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인식과 대응을 혁신세력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자치공동체 운동과 고려혁명당이 결성되는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천도교 혁신세력의 현실인식과 ‘東道’주의

동학교단은 천도교로의 改新을 통해 동학적 전통과의 단절을 표방하는 한편 ‘人乃天’이라는 宗旨를 제시함으로써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sup>6)</sup> 천도교의 이러한 노력은 1910년 강제병합 이후 갈길 잃은 지

- 
- 5) 천도교 혁신세력의 동도주의적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김정인과 김용휘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우선 김정인은 혁신세력을 서세동점의 위기를 ‘吾道’로서 대응하자는 동학의 동도주의를 계승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정인, 앞의 책, 196~197쪽). 한편 김용휘는 동도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천도교 혁신파와 신파의 차이점을 東道에 대한 해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김용휘, 「천도교의 운동노선과 동도주의」, 『종교문화연구』 27, 2016). 하지만 신파가 서구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실력양성론적 인식을 보이면서 동학적 전통에 대한 계승보다는 단절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신파의 현실인식과 대응까지 동도주의라는 범주에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세력의 동도주의를 최계우의 ‘事人如天’과 ‘동학란’의 斥倭倡義 계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6) 손병희는 문명개화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근대적 종교개념을 반영한 ‘天道敎’로의 改新을 통해 西學에 대항적이었던 동학적 전통과의 단절을 표방하는 한편 ‘人乃天’이라는

식인들의 유입으로 이어졌으며, 교인수가 급증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1910년 국망 이후에도 천도교는 근대인·문명인을 양성하기 위한 실력양성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갔다. 이들은 확장된 교세를 기반으로 교육 및 종교 활동 등 실력양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갔다.

하지만 천도교 교리의 근대적 체계화 및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천도교의 문명개화 노선은 동학에 내재되어 있었던 현실체제에 대한 부정과 西學에 대한 대항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sup>7)</sup> 1910년 강제 병합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하는 한편 천도교의 본무가 종교에 있음을 천명하는 종령을 반포하기도 했다.<sup>8)</sup> 이로 인해 천도교의 실력양성운동에 대한 내부비판과 함께 민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상존해 왔으며, 이러한 갈등은 결국 3.1운동 직후 혁신운동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최동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은 천도교 내에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의로’,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갔다. 즉, 교주선거제와 연원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은 평등적·공화적 색채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 내부 뿐 아니라 여러 정치·사회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정광조를 비롯해서 신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천도교 신파가 교권을 장악하고 혁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혁신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sup>9)</sup> 결국 오지영 등 혁신세력 일부가 이탈하여 별도로 천도교연합회를 결성하면서 분립하였다. 이처럼 천도교 혁신세력은 당시 천도교 내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신파와는 현실인식과 종교적 지향을 서로 달리하고 있었다. 즉, 천도교의 宗旨인 ‘人乃天’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3.1운동 전후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

宗旨를 제시함으로써 근대적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허수,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 45쪽; 고건호, 『한말 신종교의 문명론;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08~114쪽).

7) 김도형, 앞의 논문, 217쪽.

8) 「중앙총부회보」, 『천도교교회월보』 28, 1912.11.

9) 혁신운동의 내용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김정인, 앞의 책, 139~161쪽; 조규태, 앞의 책, 172~188쪽 참조.

인식과 이후 민족운동에 대한 방향 등 종교·정치적 인식과 대응 또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혁신세력은 서구 근대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東學의 전통 속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서양의 모든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자아충실의 필요상 나부터 知하고 우리의 것부터 修하여야 하므로 동양 스스로를 知하고 信하려면 불가불 동양도덕의 여하를 연구해야 한다”<sup>10)</sup>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동도서기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도는 유학이 아니라 동학과 동학적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1)</sup>

우선 이들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이름 한 것은 其時西學을 상대로 나온 말씀이다”<sup>12)</sup>라고 하여 동학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西學에 대항적 측면을 강조하는 가운데 동학이 창도되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서구문명과의 경합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서구문명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개화사상이나 개화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즉, “자아의 정신이 아니고 전후가 모두 남의 교화 남의 세력 하에서 출몰”<sup>13)</sup>한 것이며, 또한 “교육이고 도덕이고 政法이고 풍속 일지라도 모두 다 좋은 것이라고 문명국 것이라고 과장하는 것이며, 조선 사람이 하는 것은 신구사상을 물론하고 모두가 야만적이고 미개적이라고 하는 것이다”<sup>14)</sup>라고 하며 서구문명만을 추수하는 개화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sup>15)</sup>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양 근대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를 통한 교리 해석이 아닌 新學(서양학문)을 참조하여

10) 강춘산(강인택), 「동양도학의 체계 여하」, 『개벽』 9~15, 1921.3~9.

11) 혁신세력은 기본적으로 동학에 대한 적통의식이 강했는데, 첫째 최제우의 수양도덕 운동을 계승하여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둘째 서양문명에 추수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동양의 도를 중시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통합과 포용의 동학정신을 중심으로 분립된 동학계통 교단의 통합을 강조하였다(김정인, 「동학사의 편찬 경위」, 『한국사연구』 170, 2015, 42~43쪽).

12) 오지영, 『동학사(간행본)』, 영창서관, 1940, 2쪽.

13) 오지영, 앞의 자료(초고본), 432쪽.

14) 오지영, 앞의 자료(초고본), 430쪽.

15) 오지영, 앞의 자료(초고본), 432쪽.

舊學(동학)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궁극적으로 ‘東國의 學, 東國의 道’를 추구하던 동학 본류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東道’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sup>16)</sup>

먼저 그들이 계승하고자 한 동학본류의 정신으로서 ‘東道’는 최시형의 事人如天으로, 이는 혁신세력이 천도교의 종지인 人乃天을 재해석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그들은 최시형 시절 동학이 민중 사이에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에 주목하였다.

道에 들기 전 그 사람의 심리가 먼저 세상이 바뀔 것을 바라는데 있었다 할 것이며 道에 든 그 마음부터 또한 세상이 크게 바뀐다는데서 감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불 같은 지목이 일어난 것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밑 듯이 동학에 들어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sup>17)</sup>

이처럼 思亂意識을 지닌 민이 동학에 물밑듯이 입도하게 된 것은 바로 “날근 世上을 爲하여 나온 것이 아니오. 새 世上을 爲하여 나온 것”으로 동학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해월의 事人如天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귀빈천과 노소남녀와 적서노주의 차별을 없이 하고 삶이 서로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맞절을 하라”<sup>18)</sup>는 동학의 가르침이었다. 결국 최시형의 사인여천은 혁신세력들에 의해서 인내천의 ‘절대평등’으로 재해석되었다.

#### 絶對平等說

人은 乃天이라 故로 人은 正等하야 差別이 업나니 人이 人爲로써 貴賤을 分함은 是 | 天에 違함이니 吾道人은 一切貴賤의 差別을 撤廢하야 先師의 志를 副함으로써 爲主하기를 望하노라」 하시고 一般門徒로 더부러 先師前에 永誓 하시니라 <중략> 神師 | 曰 自今으로 吾道人은 嫡庶의 別을 有치 勿하고 大

16) 김정인, 앞의 책, 196~202쪽.

17) 오지영, 앞의 자료(초고본), 438쪽.

18) 오지영, 앞의 자료(초고본), 401쪽.



同平等의 義를 實遵하라 하시다<sup>19)</sup>

즉, 혁신세력은 인내천을 ‘부귀, 빈천, 知遇, 준비는 물론 하등 계급도 차별도 없는 절대평등을 추구하는 것’<sup>20)</sup>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전제와 계급의 모든 불합리·불철저한 것을 타파하고 근절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생을 자유에서 얻고 행복을 평화에서 구하는 것”이<sup>21)</sup> 곧 천도교의 인내천이며, 이를 근거로 모든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절대평등론적 인내천주의는 당시 사회주의에 대한 혁신세력의 인식과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즉, 혁신세력 중 한명인 김봉국은 평등을 강조한 人乃天主義를 곧 공산주의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며,<sup>22)</sup> 최동회는 계급간 물질적 불평등의 타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계급간, 인종간, 민족간의 물질적 평등과 정신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인내천주의라고 생각했다.<sup>23)</sup> 따라서 그는 천도교의 인내천과 사회주의의 계급 평등이 갖는 친화성을 거론하며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코민테른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sup>24)</sup> 뿐만 아니라 혁신세력은 인내천을 ‘萬人皆神格’주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곧 “전인류 일반적으로 성별, 계급별, 인종별 등을 초월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적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무계급적 민주주의 사회’ 또는 ‘만인평등과 민중행복의 천국’이라 하여 현실 사회

19) 『천도교서』(『총서』28, 121~122쪽).

20) 최동회, 「片山先生前」(1923.12.20). 최동회는 천도교의 인내천을 공산주의의 본지와 같다고 선전하고 다녔다고 한다(「在間島總領事 鈴木要太郎이 外務大臣 男爵 松井慶四郎에게 보낸 기밀 제76호」, 1924.3.8). 혁신세력의 일원인 김봉국 또한 인내천주의를 공산주의로 이해하기도 하였다(『왜정시대인물사료』 3, 김봉국 항목).

21) 강인택, 「현대는 즉 인내천의 실현시대」, 『천도교회월보』122, 1920.10.

22) 『倭政時代人物史料』3권, <김봉국>. 김봉국은 “인인평등만이 아니라 인천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자와 부자가 인내천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일체평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김봉국, 「만종교의 통일적 정신」, 『천도교회월보』122, 1920.10).

23) 『소수일기』, 1921년 1월 1일 ; 2월 3일 ; 4월 7일.

24) 이준식, 앞의 논문, 68쪽.

에서 무계급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기도 하였다.<sup>25)</sup>

한편 혁신세력의 절대평등론과 사회주의적인 경향은 일제로부터 ‘좌경적 공산운동의 색채가 현저한’ 세력으로 규정되기도 하였으며, 천도교 신파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26)</sup> 하지만 이들은 절대평등의 근거를 사회주의보다는 동학사상 본류에서 찾고자하였으며, 오지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천도교가 무계급 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계급은 한울의 원리가 아니라 한울이 만일 계급이 잇슬진되 한울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갖출 수가 업슬것이오 <중략> 의암성사 말삼에 가라사되 도를 깨닫고 보면 대신사나 우리가 두울이 아니니라 하섯스티 이 말삼을 드러 보와도 평등적임을 가히 알일이라<sup>27)</sup>

이처럼 혁신세력은 “신·구사상의 충돌을 조화하며 시대의 이세에 순응할” 천도교의 새로운 宗旨로서 절대평등론에 입각한 ‘人乃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 또는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혁신세력이 계승하고자 한 ‘東道’는 동학의 적통의식에 기반한

---

25) 정규선, 「개조문제에 관여하는 사회연대의 정신」, 『개벽』27, 1922. 9.

26) 천도교 신파가 혁신세력의 절대평등론을 비판했던 것은 1921년 말 1922년 초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과 연관되어 있었다. 즉, ‘김윤식사회장사건’을 계기로 민족주의 세력은 이념에 따라 분리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실력양성론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보수파는 사회주의 진영을 “민중을 현혹하는 먹지도 못하는 찻 3월의 버섯과 같은 존재”라고 하여 경계하는 한편 혁신세력의 절대평등론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표어로 인식하고 있었다(김정인, 앞의 책 158~159쪽 ; 201쪽). 따라서 이돈화는 혁신세력을 ‘오직 선동의 선구자로, 固定한 定見하에서 오직 파괴를 능사로 보는 자’라고 하여 이미 ‘敎主制도 폐지하였스며 頭目制도 개신’하는 등 ‘英斷의 개혁과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선민족이나 同 교회爲 위하여 너무도 파괴에 치중하는 偏僻된 행위’라고 하며 비판하는 한편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사상 변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天道敎徒 一般의 정신도 신사조에 물든 바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사회주의 사상(신사조)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허수, 앞의 책, 164~174쪽).

27) 오지영, 「천도교의 참면목을 나타내이고저」, 『월보』137, 1922. 1.

‘동학란’이라는 역사적 功績이었다. 혁신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한 최동희는 1916년 천도교의 실력양성론을 비판하면서 손병희에게 ‘갑오년 혁명 당시 산화한 영혼을 생각해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1운동 이후 코민테른과의 지원 및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학의 역사적 功績으로서 ‘동학란’을 내세워 천도교세력을 중심으로 한 통일 전선체 결성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全捧準之亂’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던 동학란에 대한 기억은 3.1운동 이후 천도교의 사회·정치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청년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소환되어 재인식되고 있었다. 즉, 동학란은 ‘民衆의 對政治的 改革運動’이며, 이는 ‘平等自由’나 ‘貴賤平等說’을 주장했던 동학에 의해서 민중이 개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결국 동학란은 3.1운동 이후 개조 사상의 확산과 민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全民衆의 自由的 權利, 平等的 幸福을 要求키 爲하여” 일어난 “民衆的 革新의 運動”으로서 재발견되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sup>28)</sup>

하지만 민중운동으로서 동학란이 재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란의 ‘척왜창의’는 여전히 외면되거나 오히려 극복해야 될 한계로 지적되고 있었다. 즉, 당시 동학란이 실패한 것은 “엇지면 斯土斯民에 정치적 상식이 그다지도 엄서슬가”라고 하면서 ‘民可使由之오 不可使知之라는 그때, 斥洋斥倭를 주장하며 鎮國壓民을 爲主하든 그때’라고 하여 ‘척양척왜’라는 시대에 뒤쳐진 배외주의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주의자들도 동학란에 대해서 “혁명적 농민의 계급투쟁의 초기 운동”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斥倭斥洋’ 구호를 ‘보수적 오류’로 평가하고 있었다.<sup>29)</sup>

이처럼 천도교 주류세력이 ‘동학=배외주의’라는 ‘문명론적 콤플렉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혁신세력은 동학란의 척왜창의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혁신세력 내 이론가라

28) 3.1운동을 전후로 한 동학란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홍동현, 『한말일제시기 문명론과 ‘동학란’ 인식』,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18, 103~135쪽 참조.

29) コミンテルン 編, 高屋定國·辻野功 譯, 『極東勞動者大會』, 合同出版, 1940, 118쪽.

할 수 있는 오지영은 『동학사』를 통해 동학 적통의식에 기반해서 동학란의 척왜창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우선 그가 저술한 『東學史』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천도교 이전의 역사, 즉 동학시절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본문의 전체 내용 가운데 ‘해월시대’가 대략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이 갑오년 ‘동학란’ 관련 내용으로 ‘東學亂史’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특히 오지영은 동학란을 혁신운동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반침략’ 창의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朝鮮人’이 힘을 합쳐 싸울 것을 나주목사를 설득하는 진봉준의 말을 빌려 제안하였다.

君도 朝鮮사람이오. 나도 朝鮮사람이라. 朝鮮사람으로써 朝鮮사람 對하기  
를 엇지 이와 갓치 서어 이하나노. 方今 우리 朝鮮에 東西의 外寇들이 저의 強  
暴함을 밧고 弱한 우리를 먹고 저 무서운 맘을 버리고 독한 손을 나미나니, 君  
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는 또한 “日兵 幾千名과 勢를 습하여 東學黨 討伐에 主力한다는 消息이 世上에 喧藉하였다”고 하여 2차 봉기가 척왜창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더 나아가 ‘南北接’ 갈등을 화합하는 과정에서도 ‘保國安民 斥倭斥洋의 旗幟 下에서 進退를 갓치하기로 結定’하였다고 하여 남북접이 同歸一體하여 척왜창의에 나섰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혁신세력이 3.1운동 이후 민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 통일전선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혁신세력의 ‘東道’주의는 우선 사상적으로 최시형의 事人如天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대평등론으로서 인내천주의를 한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東道’주의는 역사적으로 동학 적통의식에 기반 한 동학란 인식을 한축으로 하고 있다. 즉, 동학란의 斥倭倡義論을 계승하여 일제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민족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Ⅲ. 천도교 혁신세력의 종교·정치활동

#### 1. 人乃天의 종교적 실천과 자치공동체 건설

3.1운동 직후 전개된 천도교 혁신운동은 절대평등론적 인내천주의에 입각한 교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혁신운동의 주 내용은 교주선거제와 연원제철폐 등 중앙집권적인 교권체제를 타파하여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천도교 교권을 장악한 신파는 혁신세력의 절대평등에 대해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한울 나도 한울하여 노소장유의 구별이 없어지고 <중략> 심지어 제 아버지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하여 언어 행동을 같이하자며 교조까지 신임치 않는 기미까지 보인다”고 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앞서 문명인으로서의 자격을 전제한 실력양성론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더구나 신파는 ‘민중을 현혹하는 먹지도 못하는 첫 3월의 버섯과 같은 존재’라고 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혁신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대의적, 분권적, 평등적 교단운영체제로의 개편을 목표로 한 혁신운동은 천도교 신파의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였으며, 1922년 12월 천도교연합회를 창립하여 이탈한 뒤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다. 천도교연합회는 “모든 계급은 타파하고 지방중심과 개인분위인 평등적 교회”를 운영하고자 연원제를 폐지하고 일반교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제로 운영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즉, 그들이 추구하였던 교단내 차별적 요소를 폐지하고 절대평등·절대자유의 교회를 지향하였으며, 이들의 이러한 행보는 공산주의적 색채를 띤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천도교에서 분리된 이후 천도교연합회의 국내 활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천도교 신파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세력적으로 상당한 열세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혁신세력은 국내에서 벗어나

만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세력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천도교의 만주이주는 민족운동 근거지 확보를 모색하고 있던 최동회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었다. 즉, 최동회는 1920년 8월에 “만주에 중립국을 건설해 독립을 도모할 것. 만주는 토지가 넓고 가격이 싸므로 <중략> 대규모 조선인 부락을 만들고 학교를 설립해 동지를 훈련·양성해 일본과 개전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하여 혁신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만주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혁신운동이 실패로 끝나갈 즈음 1922년 7월 그는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혁신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교인들의 만주 이주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제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이 합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자. <중략> 될 수 있는대로 만든 사람이 합자하여 상당한 토지를 매수하여 공동 경작을 하기로 하며 또 일면으로는 자금이 업시 매년 유리하는 동포를 구제하는 책을 구할 것이다. <중략> 위에서 말한 바와 가티 하면 자연 한 부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선 사람의 신촌이 건설될 것이다.<sup>30)</sup>

이처럼 최동회는 천도교 내 혁신운동이 실패하자 노령·만주 등지를 오가며 민족해방운동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만주이주 계획을 구체화하며 국내 천도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 기고문을 통해 천도교 교인들의 만주 이주와 함께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자치공동체 건설을 밝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천도교 연합회의 혁신세력도 동조하여 만주 이주를 추진했던 것이다.

“연합회과는 그 세력이 미약해서 특기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그들은 鮮内の 운동이 거의 官憲의 탄압저지로 끝내 장래에 영구적으로 목적완성의 시기 도래가 없으므로 계속 교도를 만주로 보내어 그곳에 일대 천도교왕국을 만들

30) 스스생, 「만주를 다녀와서」 『개벽』49(1924.7), 94~95쪽.

어 외지에서 鮮內를 향하여 운동의 전개를 도모하였다”<sup>31)</sup>

즉, 최동희를 비롯해 천도교연합회는 국내의 세력약화를 만주 이주와 포교를 통해 만회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자치촌을 건설하는 한편 민족해방운동의 근거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1926년 2월 최동희가 만주에서 전위조직인 고려혁명당을 결성하면서 만주 이주가 본격화된 것도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근거지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지영의 주도로 추진된 익산지역 교인들의 집단 이주도 고려혁명당 당원이었던 김봉국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sup>32)</sup>

천도교연합회의 집단이주는 1926년 3월 오지영이 익산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로 권유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익산지역 230여명의 교인들이 만주 길림으로 집단 이주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無產農民인 同時에 耕作地가 全無”한 소작인이었다.<sup>33)</sup> 그리고 1926년 9월에는 황해도 서흥 지역의 교인들이 길림성 額穆縣 蚊河로 이주하였는데, 이번 이주는 서흥 출신 교인이자 고려혁명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동욱이 주도했다. 마지막으로 평안남도 성천 출신 김봉국의 주도로 1927년 2월 성천 지역 교인 27명이 만주 길림 樺甸縣으로 이주하고 있었다.<sup>34)</sup>

천도교연합회의 만주이주와 자치공동체 건설은 고려혁명당의 근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인내천에 입각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천도교연합회는 만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한 뒤 “천도교 인내천 취지하에 건설된 공산국이 있으니 조선민중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안락한 행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sup>35)</sup> 선전하고 있었듯이 이곳에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절대자유와 절대평등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

31)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ノ天道教ト其ノ分列ヨリ合同ヘノ科程」, 『齊藤實文書』10권, 고려서림, 1990, 477쪽.

32) 조규태, 앞의 책, 213~214쪽.

33) 『동아일보』, 1926년 9월 9일.

34) 조규태, 앞의 책, 213~215쪽.

35) 『동아일보』, 1926년 11월 18일.

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익산에서 이주했던 교인들은 7개 지역으로 나뉘어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에 대한 공동 점유와 공동 경작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이 지향하고 있던 이상적인 자치공동체는 동학사상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천도교연합회가 개인의 수양을 우선시하는 자력신앙을 중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문호적 종교를 타파하고 개인적 신앙을 숭배하라”고 하거나 “도는 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서 구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있다”고<sup>36)</sup> 하여 守心正氣에 의한 개인의 수양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 즉, 이들이 구상하고 있던 자치공동체는 “우상숭배에 유사한 미신적 의식과 신비적 주의는 해탈하고 自心自拜의 正信으로 현세천국”을 의미한 것으로 이는 동학시절부터 지향하였던 수양도덕운동을 위한 공동체 건설을 계승한 것이다.<sup>37)</sup> 즉, 이들이 만주이주를 통해 건설하고자 했던 자치공동체는 인내천에 기반한 종교적 수양공동체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 2. 斥倭倡義論 계승과 고려혁명당의 통일전선 운동

혁신세력은 천도교에서 이탈하여 천도교연합회를 창립하였으나 세력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만주이주를 통한 자치공동체 건설 운동 또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려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민족 통일전선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고려혁명당 결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 최동회는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친아들로 천도교내 상징성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다. 그는 일찍이 일본 유학을 통해 사회주의사상을 접했으며, 귀국한 이후 1916년에는 손병희에게 ‘갑오년 동학혁명’을 거론하며 항일운동에 나설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해 가

36) 오지영, 『새사람과 새한울』(『오지영전집』 上, 아세아문화사, 1992, 17쪽).

37) 김정인, 앞의 책, 155쪽.



을 그는 ‘십년을 활동하여 천하를 경동케 할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망명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사회주의자인 유동열의 주선으로 레닌을 만나기도 했다. 레닌과의 만남을 계기로 그는 코민테른과의 연대를 통한 무장투쟁을 구상했으며, 1920년 귀국 후 대구의 부호 윤홍렬, 최완 등과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체포된 적도 있었다.<sup>38)</sup>

3.1운동 직후 최동회는 오지영 등과 함께 천도교내 혁신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으나 정광조를 중심으로 한 천도교 신파에 의해 교권이 넘어가면서 실패하였다. 이후 혁신세력은 오지영을 중심으로 천도교연합회를 결성하여 분화하였으며, 그 무렵 최동회는 고려혁명위원회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민족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홍병기를 위원장으로 한 고려혁명위원회는 혁신세력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국내외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지지기반인 천도교 혁신세력의 조직 약화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시 망명길에 오른 최동회는 소비에트러시아로 들어가 코민테른 간부들과 접촉하며 무장 지원을 요청했으나 실패하고 만주 길림에서 정의부와 다물당 등 여러 망명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결국 그는 1926년 4월 천도교혁신세력을 중심으로 정의부와 다물당, 그리고 형평사혁신동맹계가 참여하는 통일전선체로서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고려혁명당은 최동회가 구상해왔던 코민테른과의 연대를 통해 무장 지원을 이끌어내고 만주를 근거지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전위 조직이었다.<sup>39)</sup> 뿐만 아니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통해 자유 평등의 이성적 신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여 혁신세력의 ‘人乃天’ 사상이 고려혁명당 당략에 반영되어 있듯이 혁신세력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sup>40)</sup> 이처럼 최동회는 천도교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 및 코민테른과의 연대를 모

38) 이준식, 앞의 논문, 72~73쪽.

39) 조규태, 앞의 책, 210~211쪽.

40) 이준식, 앞의 논문, 88~89쪽. 이를 근거로 김태웅은 고려혁명당이 종교적인 이상사회의 건설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김태웅, 「1920·30년대 오지영의 활동과 동학사 간행」, 『역사연구』2, 1993, 98쪽).

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학의 역사적 功績을 내세워 통일전선체 결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선 최동희는 1923년 말 이동휘와 한명세 등에게 천도교의 인내천이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의 본지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천도교의 略史를 설명하였다. 또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조선 민족혁명의 주체로서 천도교에 대한 지지를 호소였다. 이때 그는 천도교의 혁명적 전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동학당혁명란’을 그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즉, 천도교의 역사를 “제1회의 갑오혁명은 사회혁명, 제2회의 갑진혁명은 정치혁명, 제3회의 기미혁명은 민족혁명”으로 정리했으며, 갑오혁명을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그 원인과 역사적 의의를 분석하기도 했다.<sup>41)</sup>

그는 또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위원이었던 가타야마 쉐[片山潛]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를 위해 천도교의 역사, 특히 갑오혁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최제우의 혁명주의를 계승한 최시형이 1893년 보은에서 혁명을 모의하였으며, 이듬해 그의 부하 전봉준의 기의를 시작으로 80여만의 혁명군이 참여하면서 혁명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혁명군에 동조하여 400만 명이 혁명에 참여했으며, 공주를 함락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청·일 양군과 유림군의 공격으로 40여만의 희생을 남긴 채 패퇴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혁명군의 강령으로 ‘황실전복, 귀족박멸, 빈부귀천 및 계급 타파, 침략적 외국세력 排却, 최제우 伸冤, 국토 평균 배당’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42)</sup>

이처럼 최동희는 코민테른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갑오혁명’이라는 천도교의 혁명적 전통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이 구상하는 ‘민족혁명’의 뿌리가 1894년 ‘동학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그가 구상한 민족혁명이란 천도교의 핵심 교리인 인내천주의를 중심으로 민족세력 간의 통합과 함께 코민테른의 지원을 이끌어내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만인평등과 민중행복

41) 최동희, 『陳意』(1923. 12. 27), 5면.

42) 최동희, 『片山先生 前 天道教(東學黨)ノ元朝ト其ノ主義』(1923. 12. 31), 1~2면.

의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었다.<sup>43)</sup> 이러한 동학란 인식은 기본적으로 오지영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오지영은 1894년 동학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혁신세력 내 원로였으며, 천도교교리임시강습소 등을 통해 천도교 혁신세력의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그가 저술한 『동학사(초고본)』은 만주이주 후 교육을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었다. 즉, 『동학사』는 새로운 세상(인내천)을 만들고자 하는 개혁운동으로서 동학란과 함께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창 의로서의 동학란을 재현하고 있었다. 그는 남북접 화해 과정을 통해 척왜창 의를 매개로 同歸一體하여 항일에 나설 것을 강조하는 한편 “自國의 百姓을 처업새기 爲하야 外賊을 불너드렛나니 네 罪 가장 重大한 지라 도로혀 나를 罪人이라 이르나나”<sup>45)</sup>라는 전봉준을 입을 통해서 척왜창의에 덧씌워진 ‘배외주의운동’이라는 문명론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 척왜창의를 ‘배외주의’라 비난하던 당시의 행태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朝鮮의 百姓이야 죽거나 말거나 朝鮮의 江山이야 亡하거나 말거나 알바이 업고 다만 남의 精神이나 남의 勢力이나 모든 것을 남의 흥내 내기에만 熱狂 이 들넌 그 者들의 心理 속에는 무엇보다 外敵排斥하는 일을 第一條로 미워하고 두려워하야 斥倭斥洋의 罪目을 逆賊以上の 逆賊으로 生覺하야 가진 惡刑 을 다 배푸렀섯다.

결국 오지영은 ‘동학란=배외주의운동’라는 ‘문명론적 콤플렉스’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천도교 신파들을 비판하는 한편 척왜창의로서 동학란의 역사

43) 이준식, 앞의 논문, 68쪽.

44) 1916년 최동희가 손병희에게 ‘갑오년 동학혁명 당시 불쌍하게 산화한 이름없는 무수한 영혼들을 생각해서라도 항일운동 전개할 것’ 등의 혁신안을 건의했는데, 이때에도 오지영과 홍병기 등 원로들과 상의를 하고 있었다(최정간, 『해월 최시형家の 사람들』, 웅진, 1994, 168쪽). 또한 혁신세력 구성원이 대부분 동학농민전쟁이 활발했던 삼남지역 출신이었던 것도(조규태, 앞의 책, 195쪽) 동학란 인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45) 오지영, 위의 자료(초고본), 511쪽.

적 功績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당시 확산되고 있었던 ‘대원군 사주설’에 대해서도 “色眼鏡을 쓰고 側面觀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척왜창의로서 동학란의 역사적 공적을 계승하고자 하는 모습은 혁신세력에만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자칫 자력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종교적 수양운동에 매몰될 수 있었던 혁신세력이 민족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은 동학란에서부터 이어진 혁명적 전통을 내세워 조선민족혁명의 주체세력임을 강조하여 코민테른의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며, 또 한편으론 혁명적 전통을 계승해 제4의 혁명을 준비하는 천도교만이 민족혁명운동에서 중심세력이 되어 통일전선운동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sup>46)</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천도교 혁신세력은 ‘동학란’을 자신들의 역사(혁명)적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동학과 민의 결합’이라는 동학란의 재현으로서 ‘천도교와 사회주의세력과의 결합’(통일전선체)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또한 그 매개체로서 ‘새 세상’으로서 인내천의 실현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세력은 한편으로 통일전선의 전위조직으로서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만주 이주를 통한 이상촌 건설로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즉, 인내천의 실현이라는 평등과 평균주의가 실현되는 세상, 민중적 유토피아로서 동학란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고려혁명당 강령에서 “물질계와 정신계를 통해 자유 평등의 이성적 신사회를 건설하자”거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반항에서 우리에게 공명하는 각 피압박 민족과 결합해서 동일 전선에서 일치된 보조를 취하자”라는 강령에서 알 수 있듯이 인내천이 실천되는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과 함께 민족 구성원 모두의 평등이 보장되는 非자본주의 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sup>47)</sup>

---

46) 이준식, 앞의 논문, 83~84쪽.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천도교내 혁신세력은 우선 동학과 동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과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한 개조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이들은 동도론적 인식을 기반으로 사상적으로는 최시형의 事人如天을 계승하여 천도교의 종지인 人乃天을 절대 평등론으로 해석하였으며, 새롭게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을 우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1920년대 이들이 주도한 천도교내 혁신운동은 절대평등론적 인내천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무교주제와 연원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도교 주류인 신과의 반대에 부딪쳐 혁신운동은 실패하였으며, 천도교연합회를 결성하여 분립하였다.

천도교연합회는 연원제를 폐지하고 지방분권적 교단체제로 정비하였으며, 조직운영상 차별적 요소를 폐지하는 한편 공선제 등을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자력신앙을 강조하면서 동학초기의 수양도덕운동을 위한 공동체를 지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천도교연합회의 만주이주와 자치공동체 건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 자치공동체적 성격도 띄고 있었다. 이는 인내천의 평등과 평균주의가 실현되는 이상촌 건설이었으며, 동시에 항일운동을 위한 전진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천도교 혁신세력은 역사적으로 1894년 東學亂에 대한 강한 계승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학 적통의식을 보이면서 동학란 당시 斥倭倡義論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민족주의 운동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최동회는 일찍부터 코민테른과 연계한 민족해방운동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코민테른과 직접 접촉하기도 하였다. 그는 혁신세력들을 중심으로 고려혁명위원회를 결성하여 형평사 등 국내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이후 만주에서 정의부, 형평사와 연대하여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고려혁명당은 천도교를 통일전선의 주체로

---

47) 이준식, 앞의 논문, 88쪽.

상정하고 만주를 근거지로 한 항일무장 투쟁과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였다. 더 나아가 고려혁명당은 혁신세력의 인내천 이념이 반영된 절대평등과 자유가 실현되는 ‘현세천국’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처럼 혁신세력이 종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민족문제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동학에 대한 강한 적통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문명에 대한 맹목적 수용을 비판하는 한편 인내천의 절대평등론적 해석을 통해 사회진화론적 시각을 극복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동학의 역사적 功績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특히 1894년 동학란에 대해서 계급투쟁론적 입장에서 ‘민중혁명’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斥倭倡義’로서 반침략적 성격을 적극 계승하고자 하였다. 동학의 역사적 功績을 바탕으로 최동회는 코민테른의 지원과 천도교 중심의 통일전선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혁신세력이 종교적 입장을 견지하고 궁극적으로 종교적 이상사회를 지향하면서도 민족 문제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혁신세력의 ‘東道’주의는 사상적으로 최시형의 事人如天에서 발원한 인내천을 절대평등으로 재해석하는 가운데 당시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동학 적통의식에 기반하여 1894년 ‘동학란’의 역사적 功績을 계승하는 가운데 ‘斥倭倡義’를 매개로 한 동귀일체를 이루어 항일전선에 나서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민족해방을 통해 민족 구성원 모두의 평등이 보장되는 非 자본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선인, 2006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 2009
- 허 수, 『이돈화 연구』, 역사비평사, 2011
- 최익환, 「고려혁명당」상·하, 『신인간』 359·360, 1978
- 김태웅, 「1920·30년대 오지영의 활동과 동학사 간행」, 『역사연구』2, 1993
- 이용창, 「1920년대 천도교의 분류와 민족주의운동」,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도형, 「1920년대 천도교계의 민족운동 연구」, 『역사와 현실』 30, 1998.
- 이준식, 「최동희의 민족혁명운동과 코민테른」, 『역사와 현실』 32, 1999
- 고건호, 「한말 신종교의 문명론 ;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정용서, 「일제하·해방후 천도교세력의 정치운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정인, 「동학사의 편찬 경위」, 『한국사연구』 170, 2015
- 조규태, 「동학사의 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동향과 분화에 대한 서술」, 『동학학보』 37, 2015
- 홍동현, 『한말일제시기 문명론과 '동학란' 인식』,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 The '*Dongdoism*' and religious and political activities of *Cheondogyo* reformi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ong, Dong-hyun

Jus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reformist movement of *Cheondogyo* demanded the changes of direction 'from centralization to decentralization,' 'from dictatorship to popular opinion,' and 'from discrimination to equality.' The reformist forces, which led this movement, showed the perception of '*Dongdoism*' that intended to succeed to the tradition of Donghak, maintaining the basic position critical of Western modern civilization.

The '*Dongdoism*' of the reformist forces was primarily based on Choi Si-hyeong's ideology of *Sain-yeocheon* (事人如天, literally "Serve humans like heaven"). That is, it interpreted *Innaecheon* (人乃天, literally "Human equals god of heaven"), which is the creed of *Cheondogyo*, as a theory of absolute equality derived from *Sain-yeocheon*, and sought to put it into social practice. Therefore, the reformist movement within *Cheondogyo* led by them aimed to put *Innaecheonism* into institution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religious order. In addition, the movement of constructing an autonomous community through immigration to



Manchuria was promoted at the level of the *Gaebyeok* mov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ideal society based on *Innaecheonism*.

Next, the *Dongdoism* was historically based on the strong sense of succession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Showing the consciousness of the direct heir to Donghak, the reformist forces actively adopted the theory of *Cheok-wae chang-ui* (斥倭倡義論, literally, “the expulsion of Japan and the raising of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and engaged actively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Particularly, *Choi Dong-hui*, a central figure of the reformist forces, sought a left-right coalition for the anti-Japanese movement, by forming the Revolutionary Party of Korea, a united front, with the international support of Comintern, insisting on the historical exploi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Like the above, the reformist forces shared the historical exploi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well as the *Innaecheonism*, a theory of absolute equality. On the basis of this, they ultimately aimed at the construction of non-capitalist society where equality for all members of the nation was guaranteed, as well as national liberation through the anti-Japanese movement.

**keywords:**

*Cheondogyo*, Reformist forces, *Innaeche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ory of absolute equality, *Cheok-waeyang chang-ui*, Revolutionary Party of Korea

